

비대면 혜택 강화… 쇼핑·호텔 등 할인에 문화행사까지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현대카드

롯데홈쇼핑·홈&쇼핑 등과 할인 온라인 제휴로 소비자 혜택 확대
이마트·기아 협력 오프라인 혜택 문화행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현대카드가 비대면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홈쇼핑과 온라인 영역을 아우르면서 내수촉진을 꾀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요 호텔과 제휴 할인 및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겨냥한다.

이달 현대카드는 롯데홈쇼핑과 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과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에서는 일반 상품과 방송상품에 할인율을 각각 5%, 7%씩 책정했다. 하루에 한 번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결제한도는 20만원이다. 이어 홈&쇼핑에서는 21만원 한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왼쪽)이 지난해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현대카드

로 5만원 이상 결제시 7%를 청구할인하며 NS홈쇼핑은 20만원 한도로 5% 즉시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H몰 ▲CJ온스타일 ▲GS샵 등에서 최대 28만원 한도로 5~7%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NS홈쇼핑을 제외한 쇼핑몰 5곳은 할인을 적용하는 날짜가 열흘 안팎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할인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 영역에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제휴를 체결했다. 오는 19~20일, 26~27일 총 4일간 5만원 이상 결제 시 하루에 한 번 3000원을 청구할인한다. 반드시 앱에서 주문해야 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혜택 제외된다. 앞서 5~6일, 12~13일에 행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달에만 최대 2만4000원을 돌려주는

셈이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큰 지출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마트 가전캐시백 행사를 통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며 기아 인증중고차 구매 시 1.2% 캐시백 혹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포함된 도소매업의 카드승인실적은 연간 2조2800억원 감소한 51조 8300억원이다. 중고차 부담 완화 혜택이 도소매업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호텔과 제휴를 통해 국내여행 증진을 도모한다. 오는 31일까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롯데호텔 울산 등 2곳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디럭스룸 시티뷰·오션테라스뷰 패키지를 이용하면 오션풀 무제한과 실내사우나 5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어 롯데호텔 울산에서는 디럭스룸 1박 할인과 2인 조식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에 있는 호텔과의 제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내달 31일까지 조선 팰리스 호텔 스테이트룸과 마스터룸에 할인을 적용하며 오는 9월 31일까지는 레스케이프,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패키지 할인과 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단, 일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와 프리미엄 카드 사용자를 위한 혜택인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혜택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카드가 보유한 문화공간을 활용하면서다. 강남과 이태원, 동대문 등 지역에서 공연과 전시회, 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서울 방문 계획이 있는 현대카드 소지자라면 주요 지역에 방문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7일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국내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업계, 실생활 밀접한 특화상품으로 소비자 공략

삼성화재, 수도권 지하철 자연보험
하나손보, 아동학대 변호사비 지원
교보라이프, 강도 피해 보험 출시

보험사들이 ‘틈새’ 위험을 겨냥한 ‘특색 보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고들고 있다. 택시비·변호사비·강도 피해금까지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특화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심이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업계 최초로 ‘수도권지하철자연보험’을 출시하고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다른 보험사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주는 일종의 ‘신상품 특허’ 제도다.

수도권지하철자연보험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400원으로 한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특색 보험 이미지.

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자연사고 인지부터 대체교통 이용내역 확인까지 원스톱 자동보상 프로세스를 개발해 20년간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고객은 교통카드번호와 대체교통 영수증만 제출하면 ▲지하철 지연정보 ▲지하철 승·하차기록 ▲유효성 검사 등을 거쳐 청구된 보험금이 즉시 자동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작은 보험료로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기획한 상품”이라며 “고객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이고 실속 있는 미니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아동학대 무고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사건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해당 특약은 교권 보호와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난 2023년 ‘교권 4법’ 개정에도 무고성 신고가 잦아 교사들이 변호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온 현실을 겨냥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법적 절차에 휘말리기 쉽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교직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5월 ‘강도 피해 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따라 일상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설계됐다.

강도 피해를 볼 경우 상해 위로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강도 피해로 인한 외포 손상, 특정 3대 힘줄 손상 수술비도 지원한다. 월 2600원대 보험료와 모바일 간편 가입으로 상품 가입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강도 피해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시대에서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빠르게 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아파트값 주춤 규제發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며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70%→0.45%)는 금호·옥수동, 용산구(0.37%→0.26%)는 서빙고·이촌동 역세권, 마포구(0.60%→0.24%)는 염리·공덕동, 광진구(0.47%→0.44%)는 광장·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마·용·성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북권역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0.38%→0.36%)는 잠실·가락동, 양천구(0.55%→0.29%)는 목·신정동, 서초구(0.45%→0.32%)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45%→0.26%)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 권역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며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59㎡는 이달 1억8000만원에 거래돼 3개월 전 대비 2억9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 역시 7월 32억원에 거래되며 전달과 비교해 5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8을 기록해 전주(101.9)보다 내렸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과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광망세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SC제일은행, 달러 정기예금 최대 연 4.2% 특별금리

첫거래 고객 특별금리 이벤트
보통예금에도 최대 3.5% 제공

SC제일은행은 미국 달러 정기예금(3·6개월제) 및 달러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는 첫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달러 이상~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금리는 예치금 규모에 따라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 가입시 연 4.0% ▲10만달러 이상 30만달러 이하 가입시 4.2%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달러로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달러 외화정기예금과 달러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는 첫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

료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달러 예금인 외화보통예금에도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금리 구간은 예치금 규모에 따라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 가입시 연 2.7% ▲10만달러 이상 가입시 연 3.

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가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달러다.

두가지 상품 모두 영업점에서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 전신환매도율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미 달러화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과 높은 정기예금금리 혜택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특별금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